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The Difference of Child Care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Depending on Using In-Home Care Service

---

최정신(Choi, Jung Shin)\*\*

---

본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은 K구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록 가정(293가정)의 어머니이다. 2009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93명의 어머니에게 전자우편을 송신하여 총 69명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수단적 원조는 남편과 친족의 지원을 이용하였으며, 정보적 원조와 정서적 원조는 남편과 친구/이웃/직장동료,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이용자보다 남편, 친정부모, 시댁부모의 육아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기초과학 분야 : KRF-2008-354-C00052].

\*\* 제 1저자(교신저자):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 spirit9515@hanmail.net

## I. 서론

육아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정부는 체계적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 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보육예산이 증액되어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양적인 육아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가정의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만족도와 평가는 낮은 수준이다(서문희 등, 2004). 그동안 정부의 육아지원은 보육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보육시설은 정규시간 이외의 보육에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은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경제상황에 따른 임시·일용직 여성고용의 증가, 근무시간 연장 등에 따른 긴급하고 일시적인 아이 돌봄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강상태나 질병 등에 따라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시설보육만으로 아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방식이 아동의 연령, 삶의 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계층의 욕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탄력적이며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보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2006년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보육시설 운영시간 이외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아동의 양육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주는 서비스로, 양육자의 질병, 야근, 출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 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6년도에 4개 지역(부산, 여수, 울산, 천안)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2007년도에 38개, 2008년도에는 65개,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2008년도에는 국고금 4,108백만원, 지방비 2,652백만원의 총 6,760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30,522가구에 총 378,169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아이돌보미는 2,518명이 양성되었다. 2009년도에는 국고금 15,502백만원, 지방비 8,394백만원의 총 23,896백만원, 2010년에는 국고금 19,705백만원, 지방비 11,144백만원의 총 30,849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2007년 4개 자치구(동작, 서대문, 서초, 용산)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이용대상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이용자 가정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가정유형이 구분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인데,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시간당 1천원의 비용을 개별 가정에서 부담하며,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은 시간당 4천원, 다형(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은 개별 가정이 전액 지불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각 가정의 아이돌보미 총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월 120시간, 2008년도에는 각 가정에서 월 120시간, 연 960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였지만, 2009년부터는 월 80시간, 연 960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축소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더욱 서비스 이용시간이 축소되어 1월부터 5월까지의 월 80시간, 연 480시간이었으나 6월부터는 월 이용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여성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10).

탄력적이고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보충적 돌봄 서비스 제공과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확장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어머니의 육아과중부담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의 구조와 역할이 다양해지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과거 대가족 제도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오던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들이 단절됨에 따라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감소하였으며, 한 자녀 가정의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험이 더욱 부족해짐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어머니가 늘고 있다. 전춘애와 박성연(1996), 문혁준(2004)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 친구, 이웃, 기타 개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유형의 도움과 원조'로 정의하고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있어서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매개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버지, 동거 부모, 친족에 의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冬木, 2000). 그러나, 현재의 육아와 관련된 사회적 지지는 친정부모, 남편, 남편부모, 친정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친정 중심의 육아원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은혜 등, 1996).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양적인 팽창과는 대조적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정부 관련 부처에서 이루어진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결과보고서는 대체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관점의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맞벌

이 가정에서 직장근무로 인해 이용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낮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자는 절대 다수가 아이돌보미 사업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로 확대되어 정착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돌보미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한국여성노동연구소, 2009).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이러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시점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25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시행 지역(2009년 3월 1일 기준) 중 2009년 8월 31일 기준 K구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된 어머니 총 293명이다. 그 중 전자우편(e-mail)의 주소 불명 82명과 설문조사를 거절한 25명을 제외한 19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자조사법(노형진, 2005)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193명의

어머니에게 전자우편을 송신하여 설문에 참여한 69명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먼저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3.5세(범위: 22세~43세)이고, 이러한 평균연령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인 것을 고려한다면 30대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서비스 등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는 남편이 있는 경우가 95.7%이고, 이혼이 4.3%를 차지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전체의 63.8%를 차지하였다. 직업 분포는 전업주부가 3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직 종사자 30.4%를 차지하였다.

월 평균 가계 소득을 살펴보면, 2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9.0%,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30.4%로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 유형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형이 33.3%,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나형이 39.1%, 기본요금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다형이 27.5%로 기본요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형과 나형 전체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가형과 나형의 비율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신청 및 연계현황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다형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변인         | 범주           | 빈도 | 백분율(%) |
|------------|--------------|----|--------|
| 연령         | 20대          | 6  | 8.7    |
|            | 30대          | 58 | 84.1   |
|            | 40대          | 5  | 7.2    |
| 혼인상태       | 남편 있음        | 66 | 95.7   |
|            | 이혼           | 3  | 4.3    |
| 교육수준       | 고졸 이하        | 11 | 15.9   |
|            | 전문대학졸        | 14 | 20.3   |
|            | 대졸이상         | 44 | 63.8   |
| 직업         | 전업주부         | 22 | 31.9   |
|            | 전문직          | 11 | 15.9   |
|            | 사무직          | 21 | 30.4   |
|            | 판매/서비스직      | 3  | 4.3    |
|            | 자영업          | 4  | 5.8    |
|            | 기타           | 8  | 11.6   |
| 월 평균 가계 소득 | 200만원 미만     | 20 | 29.0   |
|            | 200-300만원 미만 | 21 | 30.4   |
|            | 300-400만원 미만 | 8  | 11.6   |
|            | 400-500만원 미만 | 13 | 18.8   |
|            | 500만원 이상     | 7  | 10.1   |
| 서비스 유형     | 가형           | 23 | 33.3   |
|            | 나형           | 27 | 39.1   |
|            | 다형           | 19 | 27.5   |

## 2. 측정도구

### 1)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牧野와 中西(1985)가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상쾌하다', '생활 속에 여유를 느낀다' 등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3문항과 '자녀가 성가시고 까다로워 짜증이 난다', '나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중압감을 느낀다' 등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7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긍정적인 의식 3문항에 관해서는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들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79$ 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山根 등(1990)의 육아지원 기능분류 및 문항을 참고로 총 24문항

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수단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의 3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단적 지원 요인은 '자녀가 아플 때 도움', '쇼핑하러 외출할 때의 도움'의 2문항, 정서적 지원 요인은 '육아에 대한 하소연', '육아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주길 바랄 때의 도움'의 2문항, 그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 등)의 상담', '육아법에 대한 조언'의 정보적 지원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아지원원은 남편, 본인친족, 남편친족, 지역사회의 4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들은 '지원원이 있다'를 1점, '지원원이 없다'를 0점으로 처리하여 지원원별로 수단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의 합계 점수를 구했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수단적원조 .780, 정보적원조 .619, 정서적원조 .718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4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록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실태

####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목적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72.5%이고,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등록은 하였으나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27.5%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

| 변인              | 범주    | 빈도 | 백분율(%) |
|-----------------|-------|----|--------|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 | 이용자   | 50 | 72.5   |
|                 | 이용희망자 | 19 | 27.5   |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 목적은 현재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직장근무 때문에 서비스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전춘애 등, 2009;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또한,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교육참여(15.6%)와 자녀양육부담(15.6%)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즉,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 3).

<표 3>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하는 목적(복수응답)

| 변인              | 범주     | 이용자(N=47)* |        | 이용희망자(N=18)* |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목적 | 직장근무   | 31         | 40.3   | 14           | 56.0   |
|                 | 교육참여   | 12         | 15.6   | 2            | 8.0    |
|                 | 병원치료   | 8          | 10.4   | 2            | 8.0    |
|                 | 여가활동   | 6          | 7.8    | 1            | 4.0    |
|                 | 산후후유증  | 1          | 1.3    | 0            | 0.0    |
|                 | 집안행사   | 7          | 9.1    | 4            | 16.0   |
|                 | 자녀양육부담 | 12         | 15.6   | 2            | 8.0    |
|                 | 자기개발활동 | 0          | 0.0    | 0            | 0.0    |
|                 | 합계     |            | 77     | 100.0        | 25     |

\* 결측값 제외

##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의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

본 연구 대상 어머니의 자녀수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연구 대상 가정의 자녀수는 1명이 76.7%로 가장 많았고, 2명이 20.5%로 2명 이하



가 전체의 97.2%를 차지하였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36개월 미만이 65.5%이고 36개월부터 취학 전이 25.3%로 학령기 전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주로 등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전국 기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자녀 연령 현황 보고(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와 연령이 낮은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전춘애 등(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4> 연구 대상 가정의 자녀수, 서비스 이용 자녀의 연령

| 변인            | 범주         | 이용자 |        | 이용희망자 |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자녀수           | 1명         | 39  | 78.0   | 13    | 68.4   |
|               | 2명         | 9   | 18.0   | 6     | 31.6   |
|               | 3명         | 2   | 4.0    | 0     | 0.0    |
|               | 합계         | 50  | 100.0  | 19    | 100.0  |
| 서비스 이용 자녀 연령* | 12개월 미만    | 10  | 16.7   | 3     | 13.0   |
|               | 12개월~36개월  | 28  | 46.7   | 13    | 56.5   |
|               | 36개월~취학전   | 16  | 26.7   | 6     | 26.1   |
|               | 초등학교 1~3학년 | 4   | 6.7    | 1     | 4.3    |
|               | 초등학교 4~6학년 | 2   | 3.3    | 0     | 0.0    |
|               | 합계         | 60  | 100.0  | 23    | 100.0  |

\*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존재(복수응답)

##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수단적 원조의 차이

먼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육아지원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아플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남편, 친정 부모, 아이돌보미, 시댁 부모, 친정 형제자매 순으로 나타났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남편, 친정 부모, 시댁 부모, 친구/이웃/직장동료, 친정 형제자매 순이었다. 자녀가 아플 때 남편과 친정부모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육아지원원이었으며, 이들의 육아원조원을 제외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에

계 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시댁 부모에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하러 갈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남편, 아이돌보미, 친정 부모, 친정 형제자매와 시댁부모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남편, 친정부모, 시댁부모, 친정형제자매, 친구/이웃/직장동료와 보육시설 종사자 순이었다. 쇼핑하러 외출해야 할 때와 같은 긴급하지 않은 수단적 원조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남편 다음으로 아이돌보미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친정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단적 지원인 자녀가 아플 때와 같은 긴급한 경우와 쇼핑하러 외출할 때와 같은 긴급하지 않은 경우 모두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남편, 친정 부모, 친정 형제자매는 중요한 육아지원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편은 응답자의 60%이상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아플 때와 쇼핑하러 갈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남편과 친족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를 중요한 육아지원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남편과 친정부모 이외의 육아지원원은 별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 수단적 원조

|            |   | 자녀가 아플 때 |      |       |      | 쇼핑하러 외출해야 할 때 |      |       |      |
|------------|---|----------|------|-------|------|---------------|------|-------|------|
|            |   | 이용자      |      | 이용희망자 |      | 이용자           |      | 이용희망자 |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남편         | 유 | 38       | 76.0 | 18    | 94.7 | 30            | 60.0 | 16    | 84.2 |
|            | 무 | 12       | 24.0 | 1     | 5.3  | 20            | 40.0 | 3     | 15.8 |
| 친정 부모      | 유 | 18       | 36.0 | 12    | 63.2 | 13            | 26.0 | 10    | 52.6 |
|            | 무 | 32       | 64.0 | 7     | 36.8 | 37            | 74.0 | 9     | 47.4 |
| 시댁 부모      | 유 | 13       | 26.0 | 10    | 52.6 | 6             | 12.0 | 6     | 31.6 |
|            | 무 | 37       | 74.0 | 9     | 47.4 | 44            | 88.0 | 13    | 68.4 |
| 친정 형제자매    | 유 | 13       | 26.0 | 3     | 15.8 | 8             | 16.0 | 3     | 15.8 |
|            | 무 | 37       | 74.0 | 16    | 84.2 | 42            | 84.0 | 16    | 84.2 |
| 시댁 형제자매    | 유 | 4        | 8.0  | 1     | 5.3  | 2             | 4.0  | 1     | 5.3  |
|            | 무 | 46       | 92.0 | 18    | 94.7 | 48            | 96.0 | 18    | 94.7 |
| 친구/이웃/직장동료 | 유 | 9        | 18.0 | 4     | 21.1 | 5             | 10.0 | 2     | 10.5 |
|            | 무 | 41       | 82.0 | 15    | 78.9 | 45            | 90.0 | 17    | 89.5 |
| 인터넷 카페     | 유 | 9        | 18.0 | 3     | 15.8 | 1             | 2.0  | 1     | 5.3  |
|            | 무 | 41       | 82.0 | 16    | 84.2 | 49            | 98.0 | 18    | 94.7 |
| 보육시설 종사자   | 유 | 12       | 24.0 | 2     | 10.5 | 6             | 12.0 | 2     | 10.5 |
|            | 무 | 38       | 76.0 | 17    | 89.5 | 44            | 88.0 | 17    | 89.5 |
| 아이돌보미      | 유 | 16       | 32.0 | -     | -    | 18            | 36.0 | -     | -    |
|            | 무 | 34       | 68.0 | -     | -    | 32            | 64.0 | -     | -    |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정보적 원조와 정서적 원조의 차이

자녀관련 상담이나 육아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남편, 친구/이웃/직장동료, 인터넷 카페, 친정 부모 순이었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남편, 친구/이웃/직장동료, 친정부모, 인터넷 카페 순이었다. 즉, 자녀 관련 상담이나 육아법에 대한 조언과 같은 정보적 지원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남편, 친구/이웃/직장동료, 친정부모,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단적 원조와는 달리 인터넷 카페가 중요한 육아지원 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에 대한 하소연이나 육아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바랄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희망자 모두 남편, 친구/이웃/직장동료, 친정 부모 순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원은 남편이었으며,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육아지원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단적 원조는 남편과 친정 부모뿐만 아니라 시댁 부모도 육아지원원으로 이용하였으나, 정보적 원조와 정서적 원조에서는 수단적 원조로서 이용되지 않았던 육아지원원인 친구/이웃/직장동료를 남편 다음으로 이용하였고, 인터넷 카페의 이용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정보적 원조를 제외한 수단적 원조와 정서적 원조를 아이돌보미에게 받고 있었다. 즉, 자녀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수단적 원조는 친족 중심의 지원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적 원조와 정서적 원조는 친족을 벗어나 친구/이웃/직장동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 정보적 원조와 정서적 원조

|            | 이용<br>유무 | 자녀관련 상담이나<br>육아법에 대한 조언<br>(정보적 원조) |      |       |      | 육아에 대한 하소연이나,<br>육아가 힘들다는 것을<br>이해바랄 때<br>(정서적 원조) |      |       |      |
|------------|----------|-------------------------------------|------|-------|------|--|------|-------|------|
|            |          | 이용자                                 |      | 이용희망자 |      | 이용자  |      | 이용희망자 |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남편         | 유        | 37                                  | 74.0 | 16    | 84.2 | 41   | 82.0 | 18    | 94.7 |
|            | 무        | 13                                  | 26.0 | 3     | 15.8 | 9  | 18.0 | 1     | 5.3  |
| 친정 부모      | 유        | 25                                  | 50.0 | 12    | 63.2 | 21   | 42.0 | 9     | 47.4 |
|            | 무        | 25                                  | 50.0 | 7     | 36.8 | 29   | 58.0 | 10    | 52.6 |
| 시댁 부모      | 유        | 13                                  | 26.0 | 5     | 26.3 | 5  | 10.0 | 5     | 26.3 |
|            | 무        | 37                                  | 74.0 | 14    | 73.7 | 45   | 90.0 | 14    | 73.7 |
| 친정 형제자매    | 유        | 23                                  | 46.0 | 6     | 31.6 | 19   | 38.0 | 5     | 26.3 |
|            | 무        | 27                                  | 54.0 | 13    | 68.4 | 31   | 62.0 | 14    | 73.7 |
| 시댁 형제자매    | 유        | 6                                   | 12.0 | 4     | 21.1 | 4  | 8.0  | 2     | 10.5 |
|            | 무        | 44                                  | 88.0 | 15    | 78.9 | 46   | 92.0 | 17    | 89.5 |
| 친구/이웃/직장동료 | 유        | 32                                  | 64.0 | 13    | 68.4 | 34   | 68.0 | 13    | 68.4 |
|            | 무        | 18                                  | 36.0 | 6     | 31.6 | 16   | 32.0 | 6     | 31.6 |
| 인터넷 카페     | 유        | 27                                  | 54.0 | 11    | 57.9 | 13   | 26.0 | 7     | 36.8 |
|            | 무        | 23                                  | 46.0 | 8     | 42.1 | 37   | 74.0 | 13    | 63.2 |
| 보육시설 종사자   | 유        | 16                                  | 32.0 | 5     | 26.3 | 8  | 16.0 | 2     | 10.5 |
|            | 무        | 34                                  | 68.0 | 14    | 73.7 | 42   | 84.0 | 17    | 89.5 |
| 아이돌보미      | 유        | 16                                  | 32.0 | -     | -    | 15   | 30.0 | -     | -    |
|            | 무        | 34                                  | 68.0 | -     | -    | 35   | 70.0 | -     | -    |

3)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t검증 결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희망자가 이용자보다 남편에 의한 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t=-2.53, p<.05$ ). 또한, 친정부모( $t=-1.75, p<.1$ )와 시댁부모( $t=-1.99, p<.1$ )에 의한 육아 지원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이용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남편이나 친족, 친구/이웃/직장동료, 인터넷과 같은 사적 육아지원원을 갖고 있는 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희망자보

다 적은 사적 육아지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나 보육시설 종사자와 같은 공적 육아지원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7>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t 검증 결과

|            | 이용유무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t값     |
|------------|-------|----|------|------|--------|
| 남편         | 이용자   | 50 | 2.92 | 1.35 | -2.53* |
|            | 이용희망자 | 19 | 3.58 | 0.77 |        |
| 친정 부모      | 이용자   | 50 | 1.54 | 1.23 | -1.75† |
|            | 이용희망자 | 19 | 2.26 | 1.56 |        |
| 시댁 부모      | 이용자   | 50 | 0.74 | 1.05 | -1.99† |
|            | 이용희망자 | 19 | 1.37 | 1.46 |        |
| 친정 형제자매    | 이용자   | 50 | 1.26 | 1.31 | 1.02   |
|            | 이용희망자 | 19 | 0.89 | 1.41 |        |
| 시댁 형제자매    | 이용자   | 50 | 0.32 | 0.77 | -0.45  |
|            | 이용희망자 | 19 | 0.42 | 1.02 |        |
| 친구/이웃/직장동료 | 이용자   | 50 | 1.60 | 1.16 | -0.28  |
|            | 이용희망자 | 19 | 1.68 | 1.00 |        |
| 인터넷 카페     | 이용자   | 50 | 1.00 | 1.14 | -0.51  |
|            | 이용희망자 | 19 | 1.16 | 1.17 |        |
| 보육시설 종사자   | 이용자   | 50 | 0.84 | 1.22 | 0.82   |
|            | 이용희망자 | 19 | 0.58 | 1.07 |        |

† p<.01, \* p<.05

### 3.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t 검증 결과

마지막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가 26.84(표준편차=4.69),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27.05(표준편차=4.64)로, 이 항목의 가능한 문항점수범위가 10~40이므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희망자 모두 비교적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t 검증 결과

|        | 이용유무 | N  | 평균값   | 표준편차 | t값    |
|--------|------|----|-------|------|-------|
| 양육스트레스 | 유    | 50 | 26.84 | 4.48 | -0.17 |
|        | 무    | 19 | 27.05 | 4.73 |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K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록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육아지원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원은 남편이었다. 또한, 수단적 원조는 남편과 친족의 지원을 이용하였으며, 정보적 원조와 정서적 원조는 남편과 친구/이웃/직장동료,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수단적 원조는 친족 중심의 지원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정보적 원조와 정서적 원조는 혈연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친구/이웃/직장동료, 인터넷 카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목적은 양육자의 질병, 야근과 같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그러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양육지원의 종류인 돌봄이 주가 되는 수단적 원조뿐만 아니라 정보적 원조와 정서적 원조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단순히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보아 주는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육아에 대한 상담이나 육아법에 대한 조언과 같은 육아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과 육아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정서적 원조 제공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록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정보적 원조와 정서적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정보와 커뮤니티가 제공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홈페이지의 개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이 파견 사업이 아닌 가족의 돌봄기능 강화와 가족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이용자보다 남편, 친정부모, 시댁부모의 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혈연관계 중심의 사적 육아지원원이 적을수록 공적 육아지원원의 이용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육아환경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친족과의 거주 거리가 멀어져가고, 친족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蔭合, 1997). 과거에는 부모를 비롯해 혈연관계에 의한 친족 네트워크를 통해 육아

관련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친족 네트워크 내에서 육아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에 대한 가정 내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약해진 전통적 가족의 기능은 육아를 사회적 책임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김은설 등, 2007), 기존의 시설 보육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보충적인 육아지원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사적 육아지원원을 대체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이용등록을 한 시점에서 두 집단은 모두 타인 양육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돌보미 서비스이용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보다 더 많고 다양한 사적 육아지원원에 의해 육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에서 욕구 충족이 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집단 간에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牧野와 中西(1985)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측정된 최정신(2009)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25.84점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26.84점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 27.05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장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안지영과 박성연(2002), 이지원(2003)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유무에 관계없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록자는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보다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가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록자가 실제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회원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각 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 실적 보고서'를 통해 매월 회원가입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 관리 지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연히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변미희 등, 2007). 부족한 홍보 속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등록한 어머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인터넷, 주변 소개, 신문/방송,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전춘애 등(2009)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홍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대중매체와 육아관련 인터넷 카페, 보육관련 홈페이지를 활용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특성 지역의 1개 지역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전반의 결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샘플 수의 한계로 인해 분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하나인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개념 위주의 논의가 아닌 이용자 측면에서의 평가를 할 수 있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지지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김승권. (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적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3
- 김은설·유은영(2007).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개념에 관한 고찰, **육아정책연구**, 1(1), 1-21
- 노형진. (2005). **SPSS 12.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설
- 문혁준.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학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변미희·강기정·정희정. (2007). 아이돌보미 시범사업 평가 및 정책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67-83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10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서문희·김미숙·박세경·최은경·임정기. (2004) 여성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5-49
- 안지영·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여성가족부. (2008). 2008 가족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이은혜·이미리. (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각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61-78
- 이지원(2003).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207-216
- 전춘애·박성연. (1996).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30
- 전춘애·이종남·방한별. (2009).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정 실태 및 가정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225-237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200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최정신. (2009).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가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3-24
- 한국여성노동연구소. (200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체계화 및 발전방향, 보건복지부, 69-114

- 冬木春子. (2000). 乳幼児をもつ母親の育児ストレスとその関連要因－母親の屬性及び  
ソーシャル・サポートとの関連において－, **現代の社會病理**, **15**, 39-56
- 牧野カツコ・中西雪夫. (1985). 乳幼児をもつ母親の育児不安－父親の生活及び意識  
との関連－, **家庭教育研究紀要**, **6**, 11-24
- 落合恵美子. (1997). **21世紀家族へ**. 有斐閣, 77-96
- 山根眞理・松田智子・斧出節子・關井友子. (1990). 保育園児をもつ母親の育児問題－  
育児不安を中心にして－, **總合社會福祉研究**, **2**, 110-121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ays to improve In-Home Care Service for differences resulting from child care service and parenting stress, depending on use of the service.

Participants consisted of hers from 293 who use the service in K region. From September 1, 2009 to October 25, total 193 mothers were surveyed by e-mail. 69 mothers were finally analyz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got the supporting aids from two different ways, irrespective of using In-Home Care Service. One was the instrumental supports given them by their husband and relatives, and the informative and emotional supports maintained by husbands, friends, neighbors, colleagues, and network community, as well.

Second, The In-Home Care Service non-users received child care support from their husbands and parents compared with the In-Home Care Service users.

Third, few differences shown statistically between the two groups that use it and don't use it.

**Key word** : In-Home Care Service, parenting stress, child care support